

重粒子線 암치료장치 완성

—최초의 의료용 加速器—

과학기술청의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소장 松平寬通)가 제작하고 있었던 重粒子線 암치료장치(HIMAC)가 완성, 10월 13일, 관계자에게 공개된다. 동장치는 헬륨이나 아르곤 이온 등을 加速시켜 암의 환부에 照射하는 세계 최초의 의료 전용 가속기를 갖춘 설비로 '87년도부터 총공사비 326억원을 투자하여 제작해 왔다. 금후 빔라인의 조정 등을 실시, '94년 3월부터 이 최첨단장치를 활용하여 임상치료를 시작한다.

암치료는 외과요법, 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 등이 있어, 이것으로 박멸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 동장치는 암환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상세포를 살리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의 최첨단 기술이다.

현재 각 部位에 대한 치료계획 작성이 放医研 등이 참가한 重粒子線 치료 네트워크 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3월 부터 頭頸部 치료를 개시한다. '98년도에는 10개소의 부위에 대한 암치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기대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科技廳은 전용병원의 건설도 계획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침대수 100床의 병원을 '94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12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동 연구를 목표로 한 重粒子線 국제임상 공동이용 센터를 '96년까지 완성하여, 重粒子線 치료의 국제기지를 이룩할 계획이다.

동센터는 '94년도에 설계비를 計上하여 95년부터 건설에 들어간다. 회의실 공동연구실, 개별연구실 등을 정비하여 평상시 150인의 연구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그것과 더불어 放医研은 장치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重粒子 프로젝트 연구를 '94년부터 개시한다. 立体X선 CT 개발 및 重粒子線 치료연구반, 진단 연구반, 암치료 메카니즘의 생물학적 조사연구반, 물리적 조사를 위한 물리·공학 연구반의 4개 연구반을 발족시키기 위해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필름벳지 뉴스」 1993.12 No.204)